

17) 볼링

볼링은 그 역사가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스포츠이다. 그러나 현대의 볼링은 미국에서 발전하여, 오늘날은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였다. 1841년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지하실에 최초로 볼링센터가 개설되었고, 1842년에는 NBA(National Bowling Association)가 설립되어 레인의 길이와 볼의 크기 등을 통일하여 경기규칙을 정하였다. 1895년에는 볼링의 총지휘적인 기능을 맡고 있는 ABC(America Bowling Congress)가 창립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 11월 13일 서울·부산·대구 등 볼링장 운영주들의 친목모임이 결성되었고, 이를 모태로 1973년 4월 23일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로 문교부의 형식인가를 받았다.

순천에서는 1984년 동외동에 그린볼링장이 개장되어 볼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85년 11월 1일 순천시청 여자볼링팀(감독 이성식, 코치 안현수, 선수 김선자·선연숙·양애숙·김희숙·송은주)이 창단되어 12월에 개최된 제6회 체육회장기쟁탈 전국 시·도대항대회에서 여자부 3위에 올랐다. 양애숙은 제3회 전국남녀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순천시청 여자볼링팀의 승전보는 1986년에도 이어져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양애숙이 2위에 올랐으며, 동년 제10회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선연숙·양애숙·김희숙 등 3명이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 5인조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국위를 선양하였다.

1988년에 광주·전남 체육회가 분리된 후 전라남도 볼링협회가 구성되었으며 초대 회장에 서거원이 취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볼링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또한 반봉영, 최상순 등은 상임 부회장 겸 전무이사를 역임하면서 전남 볼링발전에 공헌하였다. 그로부터 2년 후 변양일 2대 회장이 취임하여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에서 입상하는 등 볼링이 전남체육회에서 장려종목으로 부상하였다. 이후 김영근 3대 회장이 취임하면서 남자팀인 삼풍종합건설팀이 창단되었으며 이때 팀 구성원은 감독 최상순, 코치 정근수, 선수 최광학·정명수·강재성·신창욱·강재연 등이었다. 대통령배대회에서 최광학 선수가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하고 전국체전에서 종합 4위를 기록하였다. 4대 황재우 현 회장이 취임하여 제74회 전국체전에서 3위에 입상하여 전남 볼링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994년 팀 개편으로 남자팀은 광양시청팀으로 이적하였으며, 여자팀은 해체되었다.

현재는 사회체육의 한 종목으로 활성화되어 18개 클럽에 704명의 회원이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다.